

## 간호학생이 임상실습시 느끼는 불안의 정도와 불안야기 상황연구

박 춘 자\*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간호의 목표는 인간을 전 인격적으로 돌보아 주는 것이며 간호교육의 목표는 졸업생이 간호대상자에게 질 높은 간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육성시키는데 있다. 간호학은 실천철학을 지닌 응용과학이므로 이론과 정보제공을 주로 하는 강의만으로는 간호사로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임상적 판단 및 태도 교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학생 스스로 참여하고 경험하게 함으로써 학습이 가능해지는 실습교육이 필수적이며(서문자, 1988) 질적인 간호사를 준비시키는데 필수적인 교육의 통합된 부분이다(고성희, 김기미, 1994). 그러나 이렇게 중요한 임상실습은 강의실에서의 안전하고 아늑한 수업방식에 비해 생소하고 복잡한 환경과 여러 종류의 인간관계가 이루어지는 속에서 학생들에게 여러가지로 어려움을 낳게 하고 있다. 그동안 학생들의 임상실습에 대한 많은 연구가 있어왔는데 학생들의 정서적태도와 임상실습 만족도에 관한 것, 첫 임상실습시 학생들의 불안이나 스트레스의 수준, 또한 이에대한 대처, 중재를 위한 논문, 학생들의 임상실습의 체험, 경험 등을 다룬 논문이

많았다(오가실, 1974; 김행자, 1980; 김주희, 1982; 박송자, 1983; 박정숙, 1986; 박인순, 박영주, 1993; 오덕자, 오세영, 김진학, 1994; 고성희, 김기미, 1994; 신경림, 1996), 김(1980)은 첫 임상실습시 불안했다고 느낀 학생이 많다고 했으며 Kleehammer(1990) 등은 학습능률의 저하는 높은 불안이 있을 때라고 하였다.

어떤 일이나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뚜렷한 동기부여가 중요하며 일의 성취를 위해서는 적당한 정도의 자극을 줄 수 있는 스트레스나 불안이 존재해야 하는 것은 필수적이나 그 양이 정도가 지나치면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즉 이와 같은 높은 불안은 학생들이 임상실습을 이행하는데 적지않은 방해요인이 될 것이며 임상실습지에서 불안을 야기시키는 상황하에서는 학습은 손상받게 될 것이다. 만일 간호교육자가 이와같이 불안을 야기시키는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이것을 미리 조정하여 줄수 있다면 학생들의 불안은 줄어들 것이다(Kleehammer 등, 1990).

본 연구자는 학생 때 겪었던 경험(1960년대)과 1970년, 1980년대 학생들이 느끼는 경험이 비슷하고 1990년대에도 학생들의 느낌이 다르지 않은 것을 보면서 임상실습지에서 학생들이 자각하는

\* 국립의료원 간호전문대학 교수

불안의 정도를 파악하고 개인의 불안특성과의 관계를 규명하고 불안발생 상황을 알아보아 조정할 수 있는 상황은 조정하고, 불안발생정도가 그들의 불안특성과 관련있는 학생들은 실습시작전에 학생들의 불안을 감소시켜 효율적인 임상실습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기 위해 본 연구를 시도하게 되었다.

## 2. 연구 문제

본 연구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간호학생들이 임상실습시 느끼는 불안의 정도는 어떠한가?
2. 실습시 불안을 야기시키는 상황은 무엇인가?
3. 실습시 느끼는 불안의 정도는 개인의 불안 형태와 관계가 있는가?
4. 실습시 느끼는 불안의 정도는 개인의 특성과 관계가 있는가?
5. 실습시 느끼는 자각불안과 상황불안, 기질불안과 상태불안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 3. 용어 정의

**불안** : 압박한 위협에 대하여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정서반응으로써 내적인 조절능력의 상실로 인하여 일어나는 막연한 불쾌감을 뜻한다.

### 1) 기질불안

불안경향에 있어 비교적 변화하지 않는 개인차를 지닌 성질이나 얻어진 행동성향을 의미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Spielberger의 State-Trait Anxiety Inventory(STAI)에 의해 측정된 Trait-Anxiety를 말한다.

### 2) 상태불안

시간의 경과로 인하여 불안의 강도가 변화되는 인간의 정서적 상태를 의미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Spielberger의 STAI에 의해 측정된 State-Anxiety를 말한다.

### 3) 자각불안

학생들이 임상실습시 느끼는 불안이다. 10cm visual analogue scale에 학생이 스스로 표시한 것이다.

### 4) 상황불안

간호학생들의 임상실습시 불안을 야기시키는 상황으로 이를 환경, 대인관계, 역할, 간호업무의 4개 영역으로 나누어 보기도 했다.

## II. 문헌 고찰

### 1. 임상 실습

임상실습이란 간호교육의 정규규정에 의한 한 부분으로서 이론으로 습득한 지식을 간호현장에 적용케하여 학생의 지식, 기술, 태도면에 따른 행위의 변화로써 간호대상자의 간호가 가능하도록 돕고 지도하여 내적 소질과 능력을 외부로 이끌어 주는 것이며(전영자, 1971) 환자 간호를 위한 학생들의 실습경험을 직접계획 조직하여 교수, 지도하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오가실, 1974). 따라서 임상실습교육은 이론과 실재가 통합된 완전한 학문으로 발전시켜나가는데 꼭 필요한 교육과정의 일부분이다.

이같이 중요한 임상실습교육시 학생들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생소한 환경과 다른 여러가지 복합된 일들이 일어나는 실습장에서 여러가지 생활사건을 경험하게되어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변화를 체험하게 된다. 실습시 주어지는 적은양의 스트레스는 적당하면 적절한 학습동기를 유발하며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지만 그 정도가 지나치면 부정적인 변화를 초래하고 불안한 마음을 일으켜 학습동기를 유발시키지 못하며 회의를 느끼거나 흥미를 잃게한다. 김(1982)은 학생들이 실습교육에 흥미를 잃는 일이 많고 불안감이 49.7%로 높게 나왔는데 그이유는 간호기술과 간호지식의 부족이라고 했으며 다른 연구자들도 그 원인으로 임상실습 장소의 생소함, 다루기 어려운 환자, 실습장내 존재하는 동통, 추한 모습, 나쁜 냄새, 사회적 문제, 성기(SEX), 임종 등 어려운 문제에 대한 두려움, 뚜렷이 집어낼 수 없는 막연한 불안감

등을 들었다(오, 1974 ; 김, 1980 ; 박, 1986).

김(1980)은 첫 임상실습시 느끼는 불안에 대한 연구에서 실습전 기질불안이 높은 학생은 상태불안이 높고 실습후 기질, 상태불안도 높다고 하였다. 고와 김(1994)은 학생들이 처음 생소한 병동 환경 적응의 어려움에 따른 긴장경험, 숙련되지 않은 간호기술을 사용하는데 따른 두려움과 불안경험을 분석하였다. 이와같이 임상실습은 간호학생들에게 많은 불안감을 느끼게 하여 성공적인 학습 효과를 거두지못하게 함으로 실습시 불안을 일으키는 상황을 알아보아 이를 사전에 조치하여 불안을 감소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다.

## 2. 불 안

불안이란 현실적으로나 상상으로, 생리적, 심리적, 행동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위협에 대한 정서적 반응으로 주관적으로 경험되는 정서상태이며 염려, 긴장, 걱정하는 상태에서 압박한 위협에 대한 두려움이며 외적인 위협에 의해서보다 내적인 조절능력의 상실로 인하여 마음속으로 부터 일어나는 모호하고 막연한 감정이다(서 등, 1996 ; 유 등, 1982 ; L. S. Brunner, D. S. Suddarth, 1988).

Freud는 인간의 모든 불안은 출산에 의한 외상적 경험에서 비롯된다고 하였다. 즉, 출생시의 태아의 미성숙한 신경조직에 갑자기 밀려오는 심리적 경험, 감각, 운동기능의 세가지 복합체가 성장 과정에 있어서도 계속하여 모든 불안의 원천이 된다고 하였다(김, 1980).

Spielberger(정, 1983에 인용)는 불안은 관찰될 수 있다고 하면서 이를 기질불안과 상태불안으로 나누고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기질불안은 불안경향에 있어서 비교적 변화하지 않는 개인차를 지닌 성질이나 얻어진 행동 성향을 뜻하는 것으로 개인차를 생물학적, 본질적인 요인과 유아기의 경험에서 비롯된다고 하였다.

상태불안은 시간의 경과로 인하여 불안의 강도가 변화되는 인간의 정서적 상태를 뜻하는 것으로 이는 주관적인 경향이 높으며, 의식적인 상태에서 긴장, 걱정을 지각하게 되며 이로 인하여 자율신

경계의 활동이 일어난다. 그러므로 객관적인 것과는 관계없이 개인이 어떠한 자극을 위협적인 것으로 지각하면 상태불안의 수준은 높아진다고 하였다.

기질불안과 상태불안간의 관계는 높은 기질불안을 지닌 사람은 위협적인 상황에서 낮은 기질불안을 지닌 사람보다 더 높은 상태불안을 나타내는 상호순관계를 띄고 있다고 하였다. 불안을 일으키는 요인을 살펴보면 유 등(1982)은 인간이 자아와 본능 초자아 사이에 그리고 개인과 외부세계 사이에 균형을 이루고 살고 있는데 이 균형에 위협이 오면 자아에 대한 위협신호로 불안이 일어난다고 하였으며 Cross(1970)는 특별히 직업 또는 직장과 관련하여 직장에서의 안정성, 장래성, 적응성, 동료들간의 대인관계 등은 불안을 일으키는 요인이라고 하였다. 또한 Neylan(1962)은 불안은 알지못하거나 경험이 없는 새로운 상황이나 역할에 직면했을 때 일어난다고 하였다(정, 1983). Blainey(1980)는 임상실습지에서 불안을 일으키는 요인으로 간호플랜, 환자상태, 대인관계, 간호업무 등을 말했으며 Kleehmmer, Hart. Keck(1990) 등도 임상실습시 실수에 대한 두려움은 학생들의 불안감을 상승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고 임상지도 교수들의 평가와 관찰, 그리고 임상지도 교수들로부터 지원을 받지못한다고 인지될 때 불안감이 높다고 서술하였다. 신(1996)은 학생들의 임상실습기는 혼란기로서 이시기에 학생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였다.

경증불안에 대한 신체적 반응은 학습과 기능을 촉진하지만 그 정도가 심해질수록 학습력은 떨어지고 지각력이 감소되거나 왜해되며 집중력이 크게 줄어든다(서 등, 1996).

불안에 대한 극복 방법을 살펴보면 Kleehammer 등(1990)은 처음 병동에서의 불안경험의 극복 방법은 학생들이 실습하는 병동을 자주 바꾸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말했으며 Brunt(1984)에 의하면 한 Setting에서 시간이 지나면 학생의 불안이 감소됨을 확인하였다. 김(1980)은 실습시작전에 실습환경에 관련된 사전정보를 구체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불안을 감소시킬 수 있었다고 했으며 신(1996)은 사전에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부정적인 변화요소를 감소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 III. 연구 방법 및 절차

#### 1. 연구 대상자

본 연구는 1996년 9월 현재 K간호전문대학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임상실습을 3학기간 경험한 3학년 학생 전원 44명과 1학기간 경험한 2학년 학생전원 36명 등 모두 8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 2. 연구 도구

연구도구로는 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질문지 내용은 일반적인 특성 7문항, 기질불안 20문항, 상태불안 20문항 및 실습지에서 불안을 야기시키는 상황 20문항으로 모두 67문항이었다.

##### 1) 기질·상태불안 측정도구

Spielberger의 State-Trait Anxiety Inventory(STAI)를 한국인에게 맞도록 김정택이 번역한 도구를(정, 1983) 사용하였다. 도구의 신뢰도는 기질불안이 0.86이고 상태불안이 0.87이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기질불안이 0.83이고 상태불안이 0.93이었다. Likert 4단계 척도로 “거의 그렇지 않다”를 1점, “거의 언제나 그렇다”를 4점으로 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불안이 높다. 긍정적인 문항은 “거의 그렇지않다”를 4점, “거의 언제나 그렇다”를 1점으로 계산하였다.

##### 2) 자각불안 측정도구

실습시 느끼는 불안의 정도를 10cm의 직선위에 본인이 check하게 하였는데 0 밑에는 전혀 불안하지 않다, 10 밑에는 아주 많이 불안하다고 표시된 10cm Visual Analogue Scale이 사용되었다.

##### 3) 실습지에서 불안을 일으키는 상황 측정도구

실습지에서 불안을 일으키는 상황을 규명하기 위해 병실 등의 환경, 간호사, 의사, 실습지도교수 등과의 대인관계, 학생의 역할, 간호업무 등의 영역으로 구성되는 20개 문항의 질문지를 만들었다. 이 질문지는 본 연구자가 학생을 지도하면서

면담이나 집담회를 통해 관찰한 정서적 반응과 2학년 학생 3명을 따로 심층 면담하여 알아낸 실습지에서 느끼는 불안과 Kleehammer 등(1990)이 이용한 Clinical Experience Assessment Form을 참조하고 기타 문헌을 고찰하여 실습시 불안을 야기시킬 수 있는 여러가지 상황을 만든후 이를 간호학 교수 1인과 같이 내용을 검토하고 수정 보완하여 완성시킨 도구이다. 본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0.85였다. Likert Scale에 의한 5단계척도로 “아주 많이 불안하다”를 5점, “전혀 불안하지 않다”를 1점으로 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높은 불안을 의미한다.

#### 3.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코딩카드에 부호화한 후에 spss를 이용하여 전산통계 처리하였다. 학생들의 일반적 특성과 상황불안의 항목별 백분율을 구하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각불안과 상황불안의 차이는 ANOVA와 T-test를 이용하여 검증하였고 기질불안 및 상태불안과 자각불안, 상황불안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4. 연구의 제한점

- 1) 본 연구도구로 사용된 상황불안에 대한 질문지는 연구자가 문헌을 토대로 작성한 것으로 표준화 되어있지 않다.
- 2) 본 연구의 대상이 1개 간호전문대학의 학생에 국한되어 확대해석을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 IV. 연구결과 및 고찰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표 1>에서 보듯이 종교를 가진 사람이 77.5%로 많았고 대인관계는 좋다고 응답한 학생이 52.5%이고 간호학과의 선택동기는 “졸업후 취업이

잘 되어서"가 46.3%로 가장 많았다. 이는 김(1980)의 결과와는 유사하나 박(1993)의 결과와는 상이점을 보인다. "적성이 맞아서" 선택한 학생은 23.8%이었다. 신체건강 상태에 대해서는

57.5%의 학생이 '양호하다'고 답했고 '나쁘다'는 학생이 1명 있었는데 통계자료로는 의미가 없었으므로 '보통이다'로 묶어서 처리하였다.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 구 분          | 실 수 | 백분율  |
|-----------|--------------|-----|------|
| 학년        | 3학년          | 44  | 55.0 |
|           | 2학년          | 36  | 45.0 |
| 종교        | 유            | 62  | 77.5 |
|           | 무            | 18  | 22.5 |
| 대인관계      | 좋은편임         | 42  | 52.5 |
|           | 보통임          | 38  | 47.5 |
| 간호학과 선택동기 | 성적을 고려해서     | 4   | 5.0  |
|           | 적성에 맞아서      | 19  | 23.8 |
|           | 졸업후 취업이 잘되어서 | 37  | 46.3 |
|           | 주위의 권유로      | 17  | 21.3 |
|           | 가족의 병치료 경험   | 3   | 3.8  |
| 신체 건강 상태  | 양호하다         | 46  | 57.5 |
|           | 보통이다         | 33  | 41.3 |
|           | 나쁘다          | 1   | 1.3  |
| 간호학전공 만족도 | 만족한다         | 46  | 57.5 |
|           | 그저그렇다        | 32  | 40.0 |
|           | 불만족한다        | 2   | 2.5  |
| 임상실습 만족도  | 만족한다         | 17  | 21.3 |
|           | 그저그렇다        | 55  | 68.8 |
|           | 불만족한다        | 8   | 10.0 |

간호학 전공 만족은 57.5%의 학생이 만족한다고 했고 2명의 학생이 불만족 한다고 했으나 이것도 통계상 의미가 없어서 그저그렇다로 합해서 분석하였다. 임상실습의 만족도는 "그저 그렇다"는 학생이 68.8%로 가장 높았으며 "만족하는" 학생은 21.3%이고 불만족 하는 학생도 8명(10.0%) 있었다.

## 2. 대상자의 특성별 자각불안 정도 및 상황불안 정도

대상자의 자각불안 정도는 전체학생들의 평균은 4.3cm이고 2학년은 4.4cm, 3학년은 4.2cm였으나 이를 t검증 했을 때는 학년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Kleehammer 등(1990)의 연구에서는 고학년보다 저학년이 불안의 정도가 높다고 하였으나 본 연구와는 일치하지 않았다.

〈표 2〉 대상자의 특성별 자각불안 및 상황불안 정도

| 특성           | 구 분           | 자각불안 |      |          |        | 상황불안  |     |          |        |
|--------------|---------------|------|------|----------|--------|-------|-----|----------|--------|
|              |               | mean | SD   | t or F 값 | P 값    | mean  | SD  | t or F 값 | P 값    |
| 학년           | 전체            | 4.3  | 1.9  |          |        | 70.8  | 8.3 |          |        |
|              | 3학년           | 4.2  | 2.0  | -0.67    | 0.502  | 70.0  | 8.8 | -0.91    | 0.364  |
|              | 2학년           | 4.4  | 1.7  |          |        | 71.1  | 7.7 |          |        |
| 종교           | 유             | 4.2  | 2.0  | -0.83    | 0.410  | 71.6  | 8.5 | 1.77     | 0.081  |
|              | 무             | 4.6  | 1.5  |          |        |       |     |          |        |
| 대인관계         | 좋은편임          | 4.0  | 1.9  | -1.57    | 0.120  | 70.3  | 8.5 | -0.49    | 0.623  |
|              | 보통임           | 4.6  | 1.8  |          |        | 71.2  | 8.1 |          |        |
| 간호학과<br>선택동기 | 성적을 고려해서      | 5.5  | 0.58 |          |        | 76.5  | 5.0 |          |        |
|              | 적성에 맞아서       | 3.6  | 2.0  |          |        | 68.2  | 9.2 |          |        |
|              | 졸업후 취업이 잘 되어서 | 4.4  | 2.0  | 1.7807   | 0.1416 | 71.3  | 8.6 | 0.96     | 0.431  |
|              | 주위의 권유        | 4.7  | 1.4  |          |        | 71.2  | 7.0 |          |        |
|              | 가족의 병치료 경험    | 3.0  | 1.7  |          |        | 70.0  |     |          |        |
|              |               |      |      |          |        | 10.0  |     |          |        |
| 신체적          | 양호하다          | 3.8  | 1.9  | -2.79    | 0.007* | 68.9  | 8.6 | -2.38    | 0.020* |
| 건강상태         | 보통이다          | 4.9  | 1.7  |          |        | 73.3  | 7.4 |          |        |
| 간호학전공        | 만족한다          | 3.9  | 1.6  | -1.99    | 0.050* | 69.9  | 7.4 | -1.91    | 0.313  |
| 만족도          | 그저그렇다         | 4.8  | 2.1  |          |        | 71.9  | 9.5 |          |        |
| 임상실습         | 만족한다          | 3.1  | 1.5  | 67.3     |        |       |     |          |        |
| 만족도          | 그저그렇다         | 4.5  | 1.8  | 71.1     | 2.87   | 0.063 |     | 2.87     | 0.063  |
|              | 불만족한다         | 5.1  | 2.1  | 75.4     |        |       |     |          |        |

P<0.05

〈표 2〉에서 보듯이 신체건강 상태가 양호한 학생보다는 보통인 학생이 자각불안과 상황불안이 모두 유의하게 높게(p=0.050) 나타났고 임상실습에 대해 만족한 학생보다는 불만족한 학생이 자각불안이 높게(p=0.009) 나타났다. 기타 종교, 대인관계와 간호학선택 동기와는 두가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종교의 유무에 따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오동(1994)의 연구와는 같고 김(1982)의 결과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 3. 상황불안

〈표 3〉에서 보듯이 학생들은 “자신의 간호 지식이 부족할 때” 가장 불안하다고 하였으며(5점 평점에 4.18) 다음으로 “자신의 역할이 애매 모

호할때”(4.11) “자신의 간호기술이 부족할때”(4.00)와 “교수에게서 평가를 받을때”(4.00)가 순위가 같았으며 다음은 “실수를 할까봐”(3.81) “경험이 없는 새로운 상황”(3.76) 그리고 “간호 지식을 처음 적용해 볼때”(3.74)의 순이었다 학생들은 또한 임상지도 교수의 설명을 못 알아들을 때 불안하다고 했으며(3.73) 간호수행시 간호사와 보조가 맞지않을 때도 불안해 하였다.(3.71).

가장불안이 낮다고 응답한 항목은 “의사와의 관계”(2.25)였고 다음이 “간호사와의 관계”(2.81)였는데 나머지 다른 항목들은 3.09이상으로 모두 높은 불안 수준을 보였다. 학생들이 의사와의 관계가 별로 불안하지 않게 느끼고 있는 것이 실습시 그들과 긴밀하게 접촉이 없어서인지 원인은 잘 모르겠으나 이 문항의 평점이 다른 문항에 비해 크게 낮으므로 전체 평점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표 3〉 불안을 야기 시키는 상황

| 영역    | 상황  | mean | SD   | 순위 |
|-------|---|------|------|----|
| 환경    | 1. 생소한 병동 환경에 불안하다.                             | 3.51 | 0.73 | 12 |
|       | 2. 경험이 없는 새로운 상황들이 불안하다.                        | 3.52 | 0.77 | 6  |
|       | 3. 처음 보는 기구나 설비로 인해 불안하다.<br>(I.V. pump, EKG 등) | 3.53 | 0.91 | 13 |
|       | 4. 실습 시간에 늦을까봐 불안하다.                            | 3.22 | 1.14 | 16 |
|       | 5. 병실에 처음 실습 나갔을 때 불안하다.                        | 3.60 | 0.76 | 11 |
| 대인 관계 | 6. 임상지도 교수의 설명을 못알아들을 때 불안하다.                   | 3.73 | 0.76 | 8  |
|       | 7. 교수에게서 평가를 받을 때 불안하다.                         | 4.0  | 0.73 | 3  |
|       | 8. 교수와의 집단회시 불안하다.                              | 3.9  | 0.86 | 18 |
|       | 9. 간호사와의 관계가 불안하다.                              | 2.81 | 1.03 | 19 |
|       | 10. 수간호사나 간호사에게 관찰될 때 불안하다.                     | 3.63 | 0.83 | 10 |
|       | 11. 의사와의 관계가 불안하다.                              | 2.25 | 0.93 | 20 |
| 역할    | 12. 배운 간호지식과 현장실습이 차이가 있을 때 불안하다.               | 3.45 | 0.73 | 15 |
|       | 13. 간호지식을 처음 적용해 볼때 불안하다.                       | 3.74 | 0.65 | 7  |
|       | 14. 실수를 할까봐 불안하다.                               | 3.81 | 0.78 | 5  |
|       | 15. 자신의 역할이 애매 모호 할때 불안하다.                      | 4.11 | 0.62 | 2  |
| 간호업무  | 16. 간호 수행시 간호사와 보조가 맞지않으면 불안하다.                 | 3.71 | 0.78 | 9  |
|       | 17. 주사나 투약같은 처치를 할때 불안하다.                       | 3.45 | 0.79 | 14 |
|       | 18. 자신의 간호지식이 부족할 때 불안하다.                       | 4.18 | 0.65 | 1  |
|       | 19. 자신의 간호기술이 부족할 때 불안하다.                       | 4.00 | 0.86 | 3  |
|       | 20. 정해진 시간에 많은 간호 활동을 할당 받았을 때 불안하다.            | 3.21 | 1.01 | 17 |

〈표 4〉를 보면 불안을 일으키는 상황에 대한 질문 20항목에 대한 학생들의 평점평균은 5점만점에 3.5로서 높은 점수를 보였는데 이것을 영역별로 보았을때 학생의 역할에 대한 영역의 불안점수가 3.8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간호업무로서 3.7을 보였으며 환경 3.5 그리고 대인관계 영역이 3.3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오 등(1994)이 임상실습 장소의 생소함, 간호지식, 간호기술의 부족시 불안이 높다고 한것과 같고 Kleehammer 등(1990)이 실수를 할까봐, 교수의 관찰과 평가가 제일 불안하고 교수의 지지가 없을때 불안하다고 한것과 일치한다.

또한 Parkes(1985) 나 Selleck(1982), Grassi-Russo and Morris(1981)가 실습후 학생들은 실습지도 교수와의 대인관계 갈등이나 간호술, 간호

처치시 실수에 대한 공포를 가장 큰 불안의 원인으로 말한 것과 유사함을 보였다.

Windsor(1984)는 학생이 불안을 일으키게 하는 교수의 문제점은 인격을 무시하는 말이나 feed back의 부족 그리고 임상교수 자신의 불안이라고 하였고 Kleehammer 등(1990)은 교수의 지지가 없으면 학생의 불안이 높아져서 학습능력이 떨어진다고 했다. Brunt(1984)는 학생들이 한 setting에서 시간이 지나면 불안이 감소함을 확인하였으므로 병실을 자주 바꾸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따라서 학생들이 실습지에서 불안을 일으키지 않는 상황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교수들이 학생을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고 유머와 존경심을 갖고 학생을 대해주며 학생들이 자신의 역할을 잘 파악하게끔 도와주고 자신들의 간호

지식과 간호 기술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겠다.

#### 4. 특성별 기질 불안 정도와 상태 불안 정도

〈표 5〉에서 보듯이 학생들 전체의 기질 불안은 80점 만점에 44.5점이고 상태 불안은 45.8점으로 약간 높은 상태이다. 학년별로 보았을 때는 3학년이 2학년보다 상태 불안이 유의하게 높게( $P=0.005$ ) 나왔는데, 이것은 다른 여러가지 취업이나 국가고시 등에 대한 걱정이 영향을 주지 않았나 생각되며 대인관계가 좋은 학생은 보통인 학생보다 기질 불안이 유의하게 낮게( $P=0.044$ ) 나타났고, 신체 건강 상태가 양호한 학생이 보통이라고 응답한 학생보다 기질 불안이 유의하게 낮게( $P=0.015$ ) 나타났으며, 그의 종교, 간호학 선택 동기, 전공에 대한 만족이나 실습에 대한 만족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4〉 영역별 상황불안정도

|         | mean | SD  |
|---------|------|-----|
| 전체 상황불안 | 3.5  | 0.4 |
| 환경      | 3.5  | 0.6 |
| 대인관계    | 3.3  | 0.5 |
| 역할      | 3.8  | 0.5 |
| 간호업무    | 3.7  | 0.6 |

〈표 5〉 특성별 기질불안정도와 상태불안정도

| 특성           | 구 분           | 기질불안 |      |          |        | 상태불안 |      |          |        |
|--------------|---------------|------|------|----------|--------|------|------|----------|--------|
|              |               | mean | SD   | t or F 값 | P 값    | mean | SD   | t or F 값 | P 값    |
| 학년           | 전체            | 44.5 | 7.1  |          |        | 45.8 | 11.0 | 2.88     | 0.005* |
|              | 3학년           | 44.4 | 6.1  | 0.14     | 0.889  | 48.9 | 10.5 |          |        |
|              | 2학년           | 44.6 | 8.2  |          |        | 42.1 | 10.5 |          |        |
| 종교           | 유             | 44.8 | 7.2  | 0.75     | 0.457  | 45.6 | 10.9 | -0.34    | 0.733  |
|              | 무             | 43.4 | 6.6  |          |        | 46.6 | 11.4 |          |        |
| 대인관계         | 좋은편임          | 42.9 | 6.3  | -2.05    | 0.044* | 44.9 | 11.4 | -0.79    | 0.435  |
|              | 보통임           | 46.2 | 7.5  |          |        | 46.8 | 10.5 |          |        |
| 간호학과<br>선택동기 | 성적을 고려해서      | 44.0 | 4.1  |          |        | 38.0 | 5.4  |          |        |
|              | 적성에 맞아서       | 42.3 | 5.8  |          |        | 47.5 | 11.9 |          |        |
|              | 졸업후 취업이 잘 되어서 | 44.7 | 6.1  | 0.8100   | 0.5227 | 46.2 | 10.4 | 0.7811   | 0.5410 |
|              | 주위의 권유로       | 46.1 | 9.1  |          |        | 45.9 | 12.2 |          |        |
|              | 가족의 병치료 경험    | 47.3 | 15.3 |          |        | 40.7 | 4.9  |          |        |
| 신체적<br>건강상태  | 양호하다          | 42.8 | 6.7  | -2.49    | 0.015* | 45.6 | 11.6 | -0.22    | 0.823  |
|              | 보통이다          | 46.7 | 7.0  |          |        | 46.1 | 10.3 |          |        |
| 간호학전공<br>만족도 | 만족한다          | 43.7 | 7.7  | -1.10    | 0.273  | 44.1 | 10.6 | -1.62    | 0.109  |
|              | 그저그렇다         | 45.5 | 6.0  |          |        | 48.1 | 11.3 |          |        |
| 임상실습<br>만족도  | 만족한다          | 41.5 | 7.1  | 1.9788   | 0.1452 | 42.2 | 9.7  | 1.7802   | 0.1755 |
|              | 그저그렇다         | 45.4 | 7.1  |          |        | 46.2 | 10.7 |          |        |
|              | 불만족한다         | 44.6 | 5.9  |          |        | 50.8 | 14.6 |          |        |



## 5. 자각 불안, 상황 불안, 기질 불안 및 상태 불안 간의 상관 관계

〈표 6〉에서 보듯이 학생들의 자각 불안과 상황 불안은  $r=0.4192(P=0.000)$ 으로 순상관을 보였으며, 상황 불안을 영역별로 보았을 때, 네가지 영역 모두 순상관을 보였고, 자각 불안과 기질 불안( $P=0.003$ ), 상황 불안과 기질 불안( $P=0.004$ ), 기질 불안과 상태 불안( $P=0.000$ )도 순상관의 관계를 보였다. 이들을 다시 t검증을 해 본 결과 자각 불안이 높은 사람은 기질 불안이 높고( $P=0.002$ ), 상황 불안이 높은 사람도 기질 불안이 높게( $P=0.003$ ) 나왔다. 또한 Pearson 상관

관계에서는 유의한 관계가 없었지만, t검증에서는 상태 불안이 높은 사람은 자각 불안이 유의하게 높게( $P=0.033$ ) 나타났다. 학생들의 기질 불안이 높은 사람이 상태 불안도 높은 순상관의 결과를 보인 것은 정(1983)의 결과와 같고, 김(1980)이 실습전 기질 불안이 높은 사람은 상태 불안이 높다고 한 결과와 같다. 또한 오 등(1994)의 연구 결과와도 유사하고 Spielberger(1972)의 이론을 지지해 주는 것으로 보인다.

이 결과를 볼 때 실습전에 기질 불안과 상태 불안이 높은 학생들에게는 사전 정보 등 오리엔테이션을 더욱 상세하고 정확하게 줄 필요가 있겠다.

〈표 6〉 자각불안, 상황불안, 기질불안 및 상태불안간의 상관관계

| 구 분  | 자각 불안  | 상황 불안               | 환경                 | 대인 관계               | 역할                  | 간호 업무               | 기질 불안               | 상태 불안               |
|------|--------|---------------------|--------------------|---------------------|---------------------|---------------------|---------------------|---------------------|
| 자각불안 | 1.0000 | 0.4192**<br>(0.000) | 0.3466*<br>(0.002) | 0.4114*<br>(0.000)  | 0.2644**<br>(0.018) | 0.2284**<br>(0.042) | 0.3280**<br>(0.003) | 0.1436<br>(0.204)   |
| 상황불안 |        | 1.0000              | 0.6989*<br>(0.000) | 0.8127**<br>(0.000) | 0.7239**<br>(0.000) | 0.8041**<br>(0.000) | 0.3189**<br>(0.004) | 0.1074<br>(0.343)   |
| 환경   |        |                     | 1.0000             | 0.3810**<br>(0.000) | 0.3126**<br>(0.005) | 0.3894**<br>(0.000) | 0.1997<br>(0.076)   | 0.096<br>(0.424)    |
| 대인관계 |        |                     |                    | 1.0000              | 0.4956**<br>(0.000) | 0.5210**<br>(0.000) | 0.2454**<br>(0.028) | 0.1313<br>(0.246)   |
| 역할   |        |                     |                    |                     | 1.0000              | 0.5488**<br>(0.000) | 0.2155<br>(0.055)   | 0.0470<br>(0.679)   |
| 간호업무 |        |                     |                    |                     |                     | 1.0000              | 0.3071**<br>(0.006) | 0.0416<br>(0.714)   |
| 기질불안 |        |                     |                    |                     |                     |                     | 1.0000              | 0.5528**<br>(0.000) |
| 상태불안 |        |                     |                    |                     |                     |                     |                     | 1.000               |

## V. 결론 및 제언

간호 학생들은 임상 실습시 불안을 일으키는 여러가지 상황에 놓이게 되며 이 불안은 학생들의 학습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다.

본 연구는 간호 학생들이 임상 실습을 할 때 느끼는 불안과 불안을 일으키는 상황을 파악하고 학생들의 기질, 상태 불안과의 관계를 규명하여 임

상 실습시 학생들의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실습 지도를 위한 자료를 얻고자 시도되었다.

1996년 9월 현재 서울 소재 K전문 대학에 재학 중인 2학년 학생 36명(1학기간 실습)과 3학년 학생 44명(3학기간 실습) 모두 80명을 대상으로 실습시 느끼는 불안에 대한 자기 진술을 10Cm Visual Analogue Scale에 표하게 한 것과 불안을 일으키는 상황, 기질 불안, 상태 불안을 측정

하기 위한 총 67문항의 도구화된 질문지를 사용하여 조사했으며 자료 처리는 SPSS로 전산 통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임상 실습시 느끼는 학생들의 자각 불안은 4.3Cm이고, 상황 불안은 5점 만점에 3.5로서 약간 높았다.
2. 실습시 불안을 야기시키는 상황중에서는 “자신의 간호 지식이 부족할 때”(4.18), “자신의 역할이 애매모호할 때”(4.11), “자신의 간호 기술이 부족할 때”(4.00), “교수에게서 평가를 받을 때”(4.00), “실수를 할까봐”(3.81), “경험이 없는 새로운 상황”(3.76), “간호 지식을 처음 적용해 볼 때”(3.74) 등의 순이다.
3. 3학년 학생들의 상태 불안이 2학년 학생들 보다 높았고( $P=0.005$ ), 대인 관계가 덜 양호한 학생과 신체 건강 상태가 양호하지 않은 학생이 기질 불안이 높았다( $P=0.015$ ). 학생들이 실습시 느끼는 자각 불안이나 상황 불안은 학년별로 차이가 없었다.
4. 신체 건강 상태가 양호하지 않은 학생은 자각 불안과 상황 불안이 모두 높았으며( $P=0.007$ ,  $P=0.020$ ), 간호학 전공에 대해 불만족한 학생( $P=0.050$ )과 임상 실습에 대해 불만족한 학생이 자각 불안이 높았다( $P=0.009$ ).
5. 임상 실습 시 학생들의 자각 불안과 상황 불안은 순상관을 보였고( $P=0.000$ ), 자각 불안과 기질 불안( $P=0.003$ ), 상황 불안과 기질 불안( $P=0.004$ ), 기질 불안과 상태 불안( $P=0.000$ )도 순상관의 관계를 보였다.

위의 결과를 놓고 볼 때, 간호 학생들은 임상 실습시 여전히 불안을 느끼고 있으며, 자신의 간호 지식과 기술이 부족하여 실수를 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을 느끼고 있었다. 또한, 학생들은 교수들의 평가를 부담스러워 하고 있으며, 신체 건강이 양호하지 않고 대인 관계가 좋지 않은 학생이 불안을 더 많이 느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학년 별로는 차이가 나지 않는 결과를 보였으므로, 좀 더 많은 집단을 대상으로 조사해 볼 필요가 있겠다. 또한 학생들에게 임상 실습을 부과하기 전에 그들에게 간호 지식, 간호 가치관을 좀

더 명확하게 정립시켜 주어야 하며, 교수는 더욱 포용력 있는 태도로 학생들에게 인격적으로 대하며 실습 지도에 임해야 하리라고 본다.

## 참 고 문 헌

- 고성희, 김기미(1994). 간호학생의 첫 임상실습 경험에 대한 연구, 대한간호, 33(2).
- 구미영, 김경희, 김희, 김미영, 김미진, 안성희(1994). 간호학생의 임상실습에 대한 스트레스 인지도와 실습 수행 능력과의 관계, 가톨릭간호, 15 51-62.
- 권경남(1983). 간호전문대학생들의 임상실습 현장에서의 역할 수행에 관한 연구, 간호학회지, 13(3) 1-33.
- 김주희(1982). 간호대학생들의 임상실습에 대한 태도 조사연구, 대한간호지, 21(1), 45-57.
- 김행자(1980). 일부 간호학생의 첫 임상실습시 느끼는 불안 수준에 관한 연구, 월간간호, 4(9), 83-99.
- 박송자(1993). 임상실습에 대한 간호학생의 태도 : Q 방법론 적용, 대한간호학회지 23(4) 544-554.
- 박인순, 박영주(1993). 임상실습시 간호학생이 경험하는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 방법에 관한 연구, 조선대 병설 간호전문대학 논문집, 12, 113-127.
- 박정숙(1982). 간호교육에 대한 간호학생의 관심도 조사연구, 대한간호, 21(3), 59-74.
- 박정숙(1986). 이 완술 사용이 간호학생들의 첫 임상실습 직전 불안감소에 미치는 영향, 대한간호학회지, 16(3) 123-130.
- 박현옥(1982). 간호학생이 임상실습장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분석적 연구, 연세대 교육대학 대학원 석사논문.
- 서문자(1988). 간호학 실습교육에 대한 재고, 실습교육 방법의 활성화를 위한 워크샵.
- 서문자 외 7인(1996). 성인간호학 上, 서울, 수문사.
- 신경림(1996). 간호학생의 첫 학기 임상실습 체험연구, 성인간호학회지, 8(1), 156-168.

- 오가실(1974). 임상간호교육의 진행과정, 대한간호, 13(6), 47-51.
- 오덕자, 오세영, 김진학(1994). 간호학생의 첫 임상실습 전·후의 불안, 긴장 및 건강상태 정도, 서울간호전문대학 논문집, 113-127.
- 유숙자 외 5인(1982). 정신간호 총론, 서울 수문사, 300.
- 전영자(1971). 임상교육 계획에 관한 연구, 대한간호, 10(3), 47-53.
- 정명실(1983). 간호정보 제공이 환자의 불안해소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결자, 강현숙(1984). 일부 간호대학생의 자아개념과 임상실습 만족도와의 관계, 대한간호학회지, 14(2) 63-74.
- Blainey, C. G.(1980). Anxiety in the undergraduate medical surgical clinical student,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19(8) 33-36.
- Brunner, L. S., Suddarth, D. S.(1988). Textbook of Medical-Surgical Nursing (Sixth ed.), Philadelphia, J. B. Lippincott Company, 174.
- Kleehammer, K., Hart, A. L., Keck, J. F. (1990). Nursing Students perceptions of Anxiety-Producing Situations in the Clinical Setting,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19(8) 33-36.
- Black J. M., Jacobs, E. M.(1993). Luckmann and Sorensen's Medical-Surgical Nursing : a psychophysiologic approach(4th ed.) Philadelphia, W. B. Saunders Company, 316.
- Spielberger C. D.(1975). "Anxiety : State-Trait Process" in C. Spielberger & I. Sarason ed. Stress and Anxiety, 1 N.Y., John Wiley and Sons, 115-144.

- Abstract -

## Nursing Students Anxiety level and Perceptions of Anxiety-Producing Situations in the Clinical Setting

Park, Chun Ja\*

Aspects of nursing student's clinical experiences are anxiety provoking. High anxiety may contribute to decreased learn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level of anxiety and potentially anxiety-producing clinical experience, the relation between the level of anxiety and their Trait-Anxiety and State-Anxiety.

Finally, it is aimed at getting preparing data for guidance of students which can enhance learning effect of students for clinical experience.

The samples of this study were 36 junior students(1 semester experience) and 44 senior students(3 semester experience) from Junior College of Nursing in Seoul on September 1996.

The tools of this study were two kinds ; questionnaire of Spielberg' STAI measuring State and Trait-Anxiety, and author's for measuring the level of Anxiety producing situations and 10cm visual analogue scale was also used for measuring self stated level of anxiety on clinical setting.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SPSS using percentage, t-test, ANOVA and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

\* Professor, National Medical Center Junior College of Nursing

1. The self perception of anxiety level was 4.3/10cm and the level of anxiety in clinical setting situations was 3.5 /5.
2. Among 20 questions for perception of anxiety-producing situations in the clinical setting. "deficit of nursing knowledge" was the highest item(4.18), "vagueness of role"(4.11), "lack of nursing skill"(4.00), "evaluation by faculty" (4.00) "fear of making mistakes"(3.81) "initial clinical experience on a unit"(3.76) "initial application of nursing knowledge"(3.74) in turn.
3. The level of State-anxiety of senior students was higher than junior's( $p=0.005$ )and the level of Trait-Anxiety of insufficient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unhealthy students were higher than others( $p=0.015$ )There was no differences according to the student's grade in level of anxiety.
4. Both of self-stated anxiety and situation anxiety of unhealthy students were high ( $p=0.007$ ,  $p=0.000$ ) and the level of self-stated anxiety of unsatisfied students for selection major and clinical experience were high( $p=0.050$ ,  $p=0.009$ ).
5. Self-stated anxiety and situation anxiety ( $p=0.0000$ ), self-stated- anxiety and Trait-anxiety( $p=0.003$ ), situation anxiety and Trait-anxiety( $p=0.004$ ), and Trait-anxiety and state-anxiety( $p=0.000$ ) of the students were interrelated.

By the above conclusion, the nursing students still feel anxiety on clinical experience and on making a mistake due to the lack of their nursing knowledge and skill. And the students are afraid of the faculties' evaluation. In addition, the students who are not healthy and have not sufficiently interpersonal relationship feel more anxiety. But, since there was no difference significantly between each grade, we think it is needed that further study on the same topic in large samples. And, we have to equip the students with much nursing knowledge and philosophy apparently before the students have clinical experience. Finally, the faculty have to reduce the students' anxiety by making a climate of acceptance in clinical setting with good personality.